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2, No. 9 pp. 324-332, 2021

https://doi.org/10.5762/KAIS.2021.22.9.324
ISSN 1975-4701 / eISSN 2288-4688

보육교사의 정서조절능력이 교사효능감 및 영아-교사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정미애[1], 유경훈[2*]
[1]서정대학교 유아교육과, [2]숭실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과

The Effect of Childcare Teachers' Emotional Regulation Ability on Teacher Efficacy and Early Childhood Teacher Interaction

Mi-Ae Jeong[1], Kyoung-Hoon Lew[2*]
[1]Early Child Education, Seojeong University
[2]Early Child Education, Soongsil University Graduate School

요 약 본 연구 보육교사의 정서조절능력이 교사효능감 및 영아-교사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수도권 지역의 보육교사 193명을 대상으로 정서조절능력, 교사효능감, 영아-교사 상호작용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고, 수집된 자료를 spss22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적률 상관계수, 선형회귀분석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정서조절능력, 교사효능감, 영아-교사 상호작용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보육교사의 정서 조절능력이 교사효능감과 영아-교사 상호작용을 회귀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보육현장에서 교사의 정서조절능력의 중요성과 함께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보육교사의 정서조절능력의 중요성을 밝힘으로써 보육현장에서 영아들에게 긴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보육교사의 정서조절능력을 위한 지원과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the effect of childcare teachers' emotional regulation ability on teacher efficacy and infant-teacher interaction. To this end, 193 infant teacher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were surveyed on emotional control, teacher effectiveness, and infant-teacher interaction, and the SPSS22 program was used to analyze the collected data using proper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linear regression. First, the study found that emotional control ability, teacher effectiveness, and infant-teacher interaction were statically correlated. Second, infant teachers' emotional control skills were found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after regression analysis of teacher efficacy and infant-teacher interactions. These results suggest that support is needed along with the importance of teachers' emotional control skills at the childcare site. This study reveals the importance of infant teachers' emotional regulation ability. The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presented evidence on the need for support and programs for infant teachers' emotional regulation ability that can closely affect infants at the childcare site.

Keywords : Childcare Teacher, Emotional Regulation Ability, Teacher Efficacy, Infant-Teacher Interaction, Emotional Health

*Corresponding Author : Kyoung-Hoon Lew(Soongsil Univ.)
email: lewkh@ssu.ac.kr
Received May 25, 2021 Revised June 28, 2021
Accepted September 3, 2021 Published September 30, 2021

1. 서론

최근 영유아들에 대한 가정에서의 양육과 교육의 의무가 국가와 사회의 책무성으로 강조되고 있으며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 · 교육으로 역할이 전이되고 있다[1]. 이에 따라 교사에게 더욱 전문적인 자격요건과 성숙한 인성을 기대하게 되었으며, 영유아 보육 · 교육기관의 질적인 향상이 요구되고 있다.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과정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교사의 능력과 자격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고 이에 따라 보육교사의 질 향상과 전문성확보를 위해 영유아보육법 30조에 근거하여 2004년부터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실시하게 되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은 질 높은 보육을 위하여 평가인증지표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평가지표 세부 평가항목 가운데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에서 따른 평가항목으로 교사가 영유아의 감정에 공감하고 스스로 감정을 다룰 수 있도록 돕는지 여부, '교직원'에 따른 평가항목으로 교사의 상호작용에 대한 관찰과 지원을 실시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2]. 이는 보육교사의 교육과 보육의 질적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장 핵심적인 요인일 뿐 아니라 주 양육자와 함께 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영한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보육교사의 정서조절능력은 스스로 감정을 다룰 수 있는 것과 영유아의 감정에 공감하는 것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는 교사가 교실에서 유아와의 상호작용 가운데 스스로 정서적 고립이나 분노, 좌절감이나 슬픔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다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아가 기질적으로 까다로운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 교사에게는 고갈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보육교사의 정서조절능력은 영아-교사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보육교사가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느낄 경우 아동을 학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결과를 나타냈다[4]. 보육교사의 정서조절능력은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조절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효과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필수적인 요인임을 알 수 있다[3].

교사효능감은 교사가 학생들의 성취결과에 어느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신념과 기대를 의미하며 교사의 효율성을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 교사효능감은 Bandura의 자기효능감에 근거하고 있으며 교육활동을 통하여 교사가 학습자에게 영향을 얼마큼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한 신념의 정도를 의미한다[5]. 보육교사의 역할 가운데, 교사효능감이 높은 교사들은 학습자에게 다양한 피드백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학습자들에게 긍정적인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검증하였다[6]. 교사효능감이 높은 교사는 유아의 능력을 바로 파악하고, 이들의 능력에 맞는 교수-학습활동을 계획하는 능력을 가졌다.

교사-영아 상호작용은 어린이집에서 영아와 함께 하는 언어와 정서적인 상호작용과 함께 영아의 일상적 양육과 같은 행동적인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보육교사는 영아와 일상적 양육과 상호작용을 통하여 영아의 개별적 차이를 이해하고 발달적으로 적합한 경험을 제공하게 된다[9]. Vygotsky의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영아는 근접발달영역을 적용하여 의미있는 성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현재의 수준보다 높은 행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8]. 같은 맥락에서 신뢰가 가는 양육자 또는 교사와의 관계를 통하여 형성된 영아의 애착은 사회적 환경에 대한 신뢰감과 안정감 발달에 주요한 요소가 되며, 청소년기 또래와의 애착과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선행연구[10,11]에 따르면 유아교사의 정서지능과 관련되어 유아-교사의 상호작용 간의 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교사의 정서지능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영아와의 애정적 상호작용이 많고 긍정적 상호작용을 많이 이루어지는 것을 나타냈다[9]. 유아교사의 정서조절력과 관련하여 직무만족도 및 소진, 직무스트레스, 교사효능감, 교사-유아 상호작용, 유아의 놀이성 등에 영향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12]. 이같이 유아교사의 정서지능을 요인으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영아와의 친말한 정서적 관계를 요구받고 있는 보육교사의 정서조절능력과 관련한 선행연구는 부족한 현실이며, 최근에 그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보육교사의 정서조절능력이 요구되는 시대적 특성에 따라 교사효능감과 영아-교사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분석하고 교사의 정서조절능력의 중요성을 확인함으로써 보육교사의 정서조절능력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교사의 정서조절능력, 교사효능감, 영아-교사 상호작용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보육교사의 정서조절능력이 교사효능감과 영아-교사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2. 이론적 배경

2.1 교사의 정서조절능력

정서란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심리적 기제로서 기쁨, 분노, 슬픔, 두려움과 같은 감정과 생리적 요소, 표현적 요소, 인지적 요소와 사회적 요소들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13]. 개인에게 순간마다 일어나는 정서를 지각하고 그 의미를 인식하여 상황에 적절하게 반응 및 대처하는 것은 중요하다[14].

정서조절능력은 정서지능의 핵심요소이면서 정서를 유발하는 사회적 상황에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결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서를 효율적으로 조절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또한 개인이 스트레스나 갈등상황에서 정서적 자극과 촉진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10]. 보육교사가 교직을 수행하는 동안 다양한 정서를 경험하면서 정서적 고갈을 줄이고 긍정적인 정서를 많이 창출하도록 돕고, 개인적인 성취감 등의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정서조절능력(emotion-regulation ability)이다[15]. 영유아를 보육하는 교사는 영아에 대한 공감과 긍정적인 관계형성을 위해서 자신이 정서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이는 정서조절능력은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판단하고 모두에게 긍정적인 방식으로 정서를 전환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서조절능력은 교사가 자신의 정서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를 선택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며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친다[16]. 실제로 교사는 정서조절능력이 교육목표를 달성하고 질적으로 우수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17].

정서조절능력에 대한 연구는 Salovey와 Mayer 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들에 의하면 정서조절능력은 자신의 긍정적 및 부정적인 정서를 상황에 맞도록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표현할 수 있는 적응능력을 의미하였다[18]. 정서조절에 대한 연구는 정서 조절이 개인의 성격 특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능력으로 인식되면서 최근 정서지능이라는 개념이 교육계와 과학계, 의료계에서도 급성장하게 되었다[19].

교사의 전문성을 규정하는 조건에서 교사의 지식과 인지발달 측면을 강조했지만,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속에서 마음과 정서의 교류를 통해 이루어진다. Gu와Day에 의하면 좋은 교사란 자신의 마음과 정서를 학습자와의 관계에 적용하고 헌신하는 교사라고 하였으며[20], Hargreves는 좋은 교사란 정서적인고 열정적인 존재라고 주장하였다. 최근 교사의 전문성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교사의 정서성과 정서적 교류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21]. 영유아 교사는 영유아를 돌보는 시간이 길고 신체적, 정서적 교류가 다른 학령기 교사보다 많은 것이 특징이다. 이에따른 영유아교사의 정서적인 측면의 중요성과 그 영향력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22].

2.2 교사효능감

교사효능감(Teacher' sense of efficacy)은 Bandura의 사회인지적 이론(social cognitive theory)의 자기효능감(self-efficay)의 개념으로부터 발전하였다. Bandura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하나로 연결되는 행동을 조직하고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역량을 신뢰하는 것을 자기 효능감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이를 교사효능감에 적용하였다[5]. 교사 개인의 신념은 자신의 교육 · 보육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자신의 능력여부에 대한 인식에 따라 교수행동의 수준이 결정되어진다. 교사의 자아효능감을 교수 역할과 관련지어 개념화 한 것이 교사효능감이다[23].

Barfield와 Burlingame은 교사효능감을 "세계를 효율적으로 다루게 해주는 인간의 성격적 특성"으로 정의하였으며[24], PES(Political Efficacy Scale)를 사용하여 효능 수준을 정한 것이 교사효능감 연구의 시작이다[25]. 세계적으로 자국의 교육을 재구성 하고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시키려는 노력으로 교사교육 또는 교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관심과 노력의 증가는 학교교육의 성공과 실패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지만, 특별히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이 증가되고 있는 것이 최근의 반응이다. 교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학교교육에서 뿐 아니라 특히 유아교육 · 보육현장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교사의 전문성 뿐 아니라 교사의 역할수행능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교사효능감에 대한 연구들이 1980년대 이후 증가하여 다양한 개념정의와 측정도구들을 발전시켰다.

국내의 교사효능감 관련 선행연구 가운데, 교사효능감이 교사-유아와의 상호작용 간 관계에 변인으로 끊임없이 연구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7]. 교사효능감은 다양한 긍정적인 교수 행동과 학생의 성과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유아들의 활동성취와 유아의 동기 뿐 아니라 교사의 끈기와 열정, 책임감과 교수행동과 강하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26].

2.3 영아-교사 상호작용

상호작용이란 둘 이상의 개체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교류가 일어나는 과정이다. 특별히 영아가 교사에게 자기의 욕구를 언어 및 비언어적으로 표현

하는 것에서부터 교육의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 영아-교사 상호작용이라 할 수 있다[27]. 특별히 영아가 교사에게 자기의 욕구를 언어 및 비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것에서부터 보육의 질과 보육의 효과를 결정짓는 데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영아-교사의 상호작용을 들수 있다[28]. 영아-교사 상호작용이란 교육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교수-학습과정에서 나타나는 영아와 교사간의 의사소통을 말한다[29]. 또한 교사와 유아의 상호작용은 교육상황에서 발생하는 교사-유아간의 정서적, 언어적, 행동적 의사소통의 전체적인 면을 내포한다[29].

영아와 교사의 상호작용은 영아의 다양한 발달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소가 되기 때문에 중요성이 강조되었다[30]. 영아가 자기 욕구를 비언어적으로 양육자에게 울기와 미소짓기, 눈 맞추기 등과 같이 욕구를 표현하는 것부터 보육기관에서 가장 활발하게 나타나는 교사와의 상호작용으로서, 교수-학습과정에서 일어나는 의사소통이며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의미한다[31]. 영아와 교사의 상화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한다. 선행연구에서도 교사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외에 심리적인 요인들의 효과성에 대해 연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영아-교사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교육계획과 교육의 질의 향상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며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데 정서적 행동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교사가 영아의 흥미를 보이는 데 민감하게 반응하며 교사가 활동을 융통성 있게 변화하여 실시하는 것이 효과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32]. 영아-교사의 상호작용 유형은 행동적, 언어적, 정서적, 환경적 상호작용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행동적 상호작용은 교사가 유아의 눈높이에 맞추고 유아에게 스킨쉽과 모델링을 제시하는 등 교사가 신체표현으로 유아의 긍정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언어적 상호작용은 교사가 유아에게 안정적인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거나 유아의 질문과 요구에 반응하여 유아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언어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피드백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서적 상호작용은 교사가 유아에게 친절하게 웃는 얼굴로 대하고 유아의 개별적인 요구와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해 주는 것, 유아의 생각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하게 허용하는 가운데 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환경적 상호작용이란 일과 속에서 유아를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마련하여 유아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다.

유아교육 현장에서 보육교사들은 영아와의 상호작용이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11]. 이는 유아교육기관에서 영아들이 얻는 경험의 대부분은 교사와 또래영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아와 교사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에 따라서 영아의 발달과 학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수 있다[33]. 따라서 긍정적인 영아-교사와의 상호작용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됨에 따라 영아-교사와의 상호작용 관련연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한국교육 학술정보원(KERIS)의 자료를 통해서도 알수 있다.

박선미의 연구에 따르면 교사의 정서조절능력이 유아와 교사간의 친밀한 관계와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이 나타났다[34]. 현미정은 교사와 영유아간의 상호작용이 보육의 질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며, 교사와 영유아간의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위해 교사의 긍정적인 정서표현과 공감능력과 같은 대인관계 유능성이 중요하다고 하였다[34]. 교사와 유아의 상호작용과 관련하여 교사효능감과의 연구에서, 효능감이 높은 교사는 유아와 상호작용을 하는 데 더 열린자세를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어린이집과 놀이학교 영아반(만0세 ~ 만2세)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200명이며 일반적 배경은 〈Table 1〉에서 제시하였다. 연구대상에게 정서조절능력, 교사효능감, 영아-교사 상호작용 설문지를 해당 기관에 방문하여 배부하였으며 193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근무기관 유형은 국공립 어린이집 44.6%로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직책은 담임교사가 71.5%로 높게 나타났다. 영아보육경력은 5년 이상의 경력이 48.2%로 응답자 중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보육교사 나이는 40대가 36.8%로 가장 많았으며 최종학력은 3년제 대졸이 응답자의 44.0%로 높게 나타났다.

Table 1. Demographic background

		N	%
Working organization	National and Public Daycare Center	86	44.6
	Workplace daycare	4	2.1
	Private daycare center	54	28.0
	Home daycare	49	25.4
position	Assistant teacher	32	16.6
	Homeroom teacher	138	71.5

	Head teacher	17	8.8
	Supervisor	6	3.1
career	Less than 1 year	12	6.2
	1~3 years or less	40	20.7
	Less than 3 to 5 years	48	24.9
	More than 5 years	93	48.2
age	20's	27	14.0
	30's	70	36.3
	40's	71	36.8
	over 50	25	13.0
Final education	High school graduate	18	9.3
	college graduate	85	44.0
	University graduate	71	36.8
	Graduate school or higher	19	9.8
All		193	100

3.2 연구도구

3.2.1 교사 정서조절능력

교사의 정서조절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Salovery와 Mayer의 정서지능 모형을 문용린[35]이 개발한 정서지능검사의 하위요인 정서인식표현, 감정이입, 사고촉진, 정서활용 및 정서조절 척도 가운데 정서조절만 사용하였다. 교사 자신의 감정과 기분을 균형있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과 좌절감을 갖거나 불쾌감이 있는 상대방에게 기분을 전환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자신의 목표를 실천하고자 정서를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본 척도는 총 8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1, 6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 척도로 평정하였다. 2-5,8 문항은 역채점 한 후,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정서조절능력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본 연구의 문항간 신뢰도는 Cronbach α.는 .82로 나타났다.

3.2.2 교사효능감

보육교사의 교사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홍화연[36]이 수정·보완한 '유아교사 효능감 척도'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학급운영관리 15문항, 영아상호작용 9문항, 교수활동 6문항인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 으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 신뢰도 Cronbach α는 .89로 나타났다.

3.2.3 영아-교사 상호작용

영아와 교사의 상호작용을 평가한 척도로서 임옥희(2006)가 개발한 '보육교사-영아 상호작용 척도'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교사의 반응적 태도가 8문항, 적극적인 활동 참여 10문항, 교사의 허용적 태도 3문항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문항 신뢰도 Cronbach α는 .84로 나타났다[37].

3.3 자료분석

본 연구에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보육교사의 정서조절능력, 교사효능감, 영아-교사 상호작용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계수를 구하고, 보육교사의 정서조절능력이 교사효능감과 영아-교사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 연구결과

4.1 정서조절능력에 따른 교사효능감, 영아-교사 상호작용 간의 상관관계

보육교사의 정서조절능력, 교사효능감, 영아-교사 상호작용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2〉에서와 같이 정서조절능력과 교사효능감 전체는 정적 상관관계 r=.382 (p<.001), 영아-교사 상호작용과 교사효능감 간에 정적 상관관계

Table 2. Correlation for each factor

	1	2	3	4	5	6	7	8
2	.368***	1						
3	.317***	.794***	1					
4	.374***	.782***	.777***	1				
5	.382***	.928***	.926***	.922***	1			
6	.322***	.746***	.782***	.777***	.830***	1		
7	.334***	.705***	.791***	.763***	.813***	.797***	1	
8	.042	.326***	.437 ***	.448***	.436***	.502***	.509***	1
9	.248**	.659***	.755***	.749***	.779***	.865***	.867***	.832***

p<.01 ,*p<.001

1. Emotional Control Ability 2. Class Operation Management, 3. Infant Interaction, 4. Teaching Activity, 5. Teacher Efficacy, 6. Responsive Attitude, 7. Active Participation, 8. Tolerant Attitude, 9. Infant-Mutual Action

r=.779(p<.001)을 나타났다. 정서조절능력과 영아-교사 상호작용 간 상관관계간에 r=.248(p<.01) 로 정적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결과를 통해 보육교사의 정서조절능력이 교사효능감과 영아-교사 상호작용 간에 상관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4.2 정서조절능력에 따른 교사효능감, 영아-교사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보육교사의 정서조절능력이 교사효능감의 하위요인들과 전체점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알아보기 위해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Table 3〉에서와 같이 유의성을 검정하기 위한 통계값 F= 32.596(p<.001)로 유의확률이 .000으로 유의수준 .001보다 작게 나타나 본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보육교사의 정서조절능력이 교사효능감 전체에 대한 결정계수 R^2=.146으로 14.6%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보육교사의 정서조절능력이 교사 효능감 전체에 B=.250(p<.001)와 같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교사효능감 하위요인 학급운영관리에 B=.260(p<.001), 영아상호작용에 B=.224(p<.001), 교수활동에 B=.265(p<.001)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Influence on the sub-factors of teacher efficacy for emotional regulation

		B	β	t	R^2	F
1	costant	3.312		19.031	.136	29.969***
	Emotional regulation	.260	.368	5.474		
2	constant	3.350		18.878	.101	24.401***
	Emotional regulation	.224	.317	4.626		
3	constant	3.283		18.865	.140	31.055***
	Emotional regulation	.265	.374	5.573		
4	constant	3.315		20.689	.146	32.596***
	Emotional regulation	.250	.382	5.709		

***p<.001
1. Class operation management, 2. Infant interaction, 3. Teaching activities, 4. Teacher efficacy

보육교사의 정서조절능력이 영아-교사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가 알아보기 위해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표에서와 같이 유의성을 검정하기 위한 통계값 F=12.483 (p<.01)로 유의확률이 .001로 유의수준 .01보다 작게 나타나 본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보육교사의 정서조절능력이 영아-교사 상호작용 전체에 대한 결정계수 R^2=.061으로 6.1%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보육교사의 정서조절능력에 따라 영아-교사 상호작용 전체에 B=3.556(p<.01)로 유의확률 .01보다 크게 나타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영아-교사 상호작용의 하위요인인 허용적태도의 비표준화 계수 B=3.749(p>.05)로 나타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를 종합하면, 교사의 인구사회학적 배경가운데 근무시설유형, 보육교사 경력, 최종학력이 보육교사의 정서조절능력에 상관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보육교사의 정서조절능력이 교사효능감의 하위요인 학급운영관리, 영아상호작용, 교수활동 전체와 영아-교사 상호작용의 하위요인인 교사반응과 적극적 활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Table 4. Influence of Infant-Teacher Interaction Sub-factors on Teacher's Emotional Regulation

		B	β	t	R^2	F
1	constant	3.483		20.674	.104	22.169***
	Emotional regulation	.217	.322	4.708		
2	constant	3.438		21.135	.112	23.976***
	Emotional regulation	.218	.334	4.897		
3	constant	3.749		15.401	.002	.345
	Emotional regulation	.039	.042	.587		
4	constant	3.556		21.759	.061	12.483**
	Emotional regulation	.158	.248	3.533		

**p<.01, ***p<.001
1.Teacher responsive, 2. Active activity, 3. Acceptable attitude, 4. Infant-teacher interaction

5.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보육교사의 정서조절능력이 교사효능감과 영아-교사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교사의 정서조절능력이 교사효능감, 영아-교사 상호작용에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사효능감의 하위요인인 학급운영관리, 영아상호작용, 교수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사의 정서조절능력이 학습운영관리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영아와의 상호작용에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교사의 정서조절능력이 학급운영관리에 유의

미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선행연구[10]에서 교사의 정서적인 요인이 교사의 효능감에 영향을 주며 교사행동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와 일치한다. 유아교사의 정서지능과 교사 효능감과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관련성에 대한 연구들을 통해서도 결과를 지지하는 바이다.

보육교사의 정서조절능력이 영아-교사의 상호작용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교사의 정서조절능력이 영아-교사 상호작용의 하위요인인 교사의 반응적태도, 적극적 활동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44]에서 유아교사의 정서지능이 교사-유아의 상호작용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또한 보육활동 수행 중 교사 정서와 교사-영아 상호작용의 관계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힌 선행연구[39]와 같은 결과임을 알 수 있다.

둘째, 보육교사의 정서조절능력이 교사효능감과 영아-교사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정서조절능력이 높은 보육교사는 교사효능감의 하위요인인 학급운영관리, 교수활동, 영아상호작용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보육교사의 정서와 영아와의 상호작용 간의 관계를 연구한 선행연구[10,39]의 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또한 보육교사의 정서조절능력이 영아-교사 상호작용의 하위요인인 교사반응적태도, 적극적 활동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허용적태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는 선행연구[40]의 결과와 같이 정서조절능력이 높은 보육교사는 바람직한 정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부정적인 정서를 줄이려 하는 전략을 쓴다는 결과를 지지한다. 반면 영아의 까다로운 문제행동을 다룰 때 감정적으로 고갈되기 때문에 허용적 태도를 보여주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선행연구[27]와 연구결과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따라서, 보육교사의 정서조절능력이 교사효능감과 영아-교사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첫째, 보육교사의 정서조절능력, 교사효능감, 영아-교사 상호작용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교사의 정서조절능력이 교사효능감과 영아-교사 상호작용의 하위요인에서 반응적 태도와 적극적 참여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선행연구 [41,4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교사의 정서지능과 관련하여 보육의 질을 결정하는 영아-교사 상호작용에 큰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교사의 효능감에 영향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특히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교사의 특성상 보육시간이 길고, 이에 따른 심리적 반응을 많고 신체적 에너지소모가 많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소진 될 경우가 많음을 나타낸다. 영아들과 장시간 상호작용하는 보육교사에게 정서조절은 핵심적 역량이며 영아-교사의 상호작용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다양한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영아를 담당하는 보육교사의 안정된 정서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정서조절능력이 교사효능감과 영아와의 관계에 영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의 제한점으로 영아를 담당하는 보육교사의 정서조절상황에 대한 구체적 사례분석이다. 이같은 제한점을 보완하고자 제언할 점은 보육교사의 정서조절이 필요한 상황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질적연구를 통해 기술하여 그 내용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를 통하여 보육교사의 정서조절능력과 교사효능감, 영아-교사의 상호작용에 유의미한 관계를 밝힘으로써 보육현장에서 영아들에게 긴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보육교사의 정서조절능력에 대한 지원과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References

[1] D. H. Kim, “The current state of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s child-rearing policies”, *Parenting Policy Forum,* Vol. 53, pp.28-33, 2017.

[2] Korea Childcare Promotion Agency . 2021 Daycare Assessment Manual (for daycare). Seoul: Korea Childcare Promotion Agency, pp71-116.

[3] H. G. Paik, & J.Y.Lee, “The Effects of Perspective Taking Ability on The Emotional Control Ability of Child-care Teachers”, *Journal of Korean Coaching Research.* Vol.13, No.4, pp.103-121, 2020.

[4] Y. E. Kim, & H.S.Lee, “A Basic Study on Personality Education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for Prevention of Child Abuse,* Vol.7, No.1, 15-32. 2016.

[5] Bandura, A.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 change. *Psychology Review*, Vol. 84, pp.191-215, 1997.

[6] Barni, Danioni., & Benevene, Barni, D., Danioni, F., & Benevene, P. Teachers' self-efficacy: The role of personal values and motivations for teaching. *Frontiers in Psychology,* 2019.

DOI: https://doi.org/10.3389/fpsyg.2019.01645

[7] Y. K. Moon, & S. N. Choi, "Teachers' Teaching Efficacy on Preschoolers Peer Interaction: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Teachers - Child Interaction", *Korean Journal of Child Education and Care,* Vol.15, No.2, pp.1-20, 2015.

[8] Vygotsky. L. S. (1978). Socio-cultural theory. *Mind in society,* Vol. 6, pp.52-58, 1978.

[9] H. J. Cho, & S. Y. Kim, "A relationship of teachers' emotional intelligence to teacher-infant interaction among infant teachers",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17, No.5, pp.189-208, 2012.

[10] K. R. Lee, & H. J. Moon, "The Relationship Between Early Childhood Teacher's adult attachment and The Quality of Teacher's Interaction Behavior: The Mediating Effect of Emotional Regulation Ability and Teacher Efficacy", *kicce,* Vol.10, No.2, pp.125-161, 2016.

[11] S. K. Kang, M. J. Kim, & M. R. Chung, The Relationship between No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Emotional Intelligence andTeacher-Child Interaction in the Mediating Effect of Emotional Labor, Korean J of Childcare & Education, Vol.12, No.2, pp.183-200,2016
DOI: http://dx.doi.org/10.14698/jkcce.2016.12.02.183

[12] S.M. Park, The relation among the emotion-regulation ability, child-teacher relationship burnout of early childhood teachers,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Vol.22, No,1, pp.21-32, 2013.

[13] Kagan, J., "Temperament and the reactions to unfamiliarity", *Child development,* Vol.68, No.1, pp.139-143, 1997.

[14] J. Y. Lee, & S.M. Kwon, "Relationship Between Emotion Regulation and Psychopathology: Recent Research Trends and Future Research Tasks", *Koreanpychology,* Vol.18, No.3, pp.461-493, 2006.

[15] S. M. Park, "An analysis of character education components in Nuri curriculum guidebooks for teachers: a focus on ages, themes, and activities", *Journal of Research in Curriculum Instruction,* Vol.17, No.4, pp.1007-1031 (25 pages), 2013.
DOI : https://doi.org/10.5762/KAIS.2019.20.4.329

[16] Gross, J. J., "EmotIon RegulatIon: AffectIve, CognItIve, and SocIal Consequences", *PsychophysIology,* Vol. 39, pp.281-291, 2002.

[17] Sutton, R. E., "Emotional regulation goals and strategies of teachers", *Social Psychology of Education,* Vol.7, pp. 379 -398, 2004.

[18] Salovey, P., & Mayer, J. D., What is emotional intelligence? In P. Salovey & D. Sluyter (Eds.), Emotional development and emotional intelligence: Implications for educators. New York: Basic Book, 1997. pp.1-22.

[19] Gross & John, Gross, J. J., & John, O. P., "Individual differences in two emotion regulation processes: Implications for affect, relationships, and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85, pp.348-362, 2003.

[20] Gu, Q., & Day, C., " Teachers resilience: A necessary condition for effectiveness",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Vol. 23, No. 8, pp.1302-1316, 2007,
DOI: https://doi.org/10.1016/j.tate.2006.06.006

[21] Hargreaves. A., "The emotional politics of teaching and teacher development: With implications for educational leadership", *International journal of leadership in education,* Vol.1, No.4, pp.315-336, 1998.

[22] J. H. Lee, "The Analysis of effects between job-satisfaction, burnout and perceived teacher's emotional intelligence in early childhood teaching", *Child Education,* pp.199-210, 2007.

[23] Y. J. Kim, "A Review on the Research Trend and the Related Variables of "Teacher Efficacy"",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Vol.17, No.2, pp.129-143, 2005.

[24] Barfield, V. & Burlingame, M., "The pupil control ideology of teachers in selected schools", *The Journal of Experimental Education,* Vol.42, No. 4, pp.6-11, 1974.

[25] Woolfolk, A. E. & Hoy, W. K., "Prospective teachers' sense of efficacy and beliefs about control",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82, No.1, pp.81-91, 1990.

[26] Tschannen-Moran, M., & Hoy, A. W., "Teacher efficacy; capturing and elusive construct",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Vol. 17. No.7, pp.783-805, 2001.

[27] M. H. Seo, & K. H. Lew, "The Effects of Infant Care Teacher's Adult Attachment and Teacher Efficacy on Infant-Teacher Interaction", Journal of education Science, Vol.22, No.2, pp.157-176, 2020.
DOI: https://doi.org/10.15564/jeju.2020.05.22.2.157

[28] I. S. Kang, "The Effects of Teacher's Responsivity Program on Children`s Social Interaction",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pp.93-114, 2003.

[29] J. S. Ahn. *Relation of teacher-child interaction and maternal child rearing behavior to children's self-perception.* Master's thesis, Ewha Woman University, pp. 4-7, 2004.

[30] Y. H. Kim, J. H. Park, & E.J.Lee, "The Effects of Childcare Centers Accreditation on Teachers' Utilization of Activity Materials and Interaction with Children", *The Korean Journal of Community Living Science,* Vol.19, No.3, pp.387-397, 2008.

[31] B. J. Kang, & Y. S. Paik, "The relationships between teachers' burn out and teacher-young children interactions in the mediating effects instructional creativity and teaching efficacy of day care center

teachers", *Korean Journal of Children's Media,* Vol.12, No.1, pp.145-168, 2013.

[32] H. W. Shin, *A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ers' intrapersonal intelligence and interaction with young children.* Master's thesis, Sookmyung Woman's Universty of Education, pp. 19-21, 2013.

[33] H. K. Kwark, *A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Happiness, Self-Identity and Teacher's Efficacy Belief, Teacher-Young Children Interaction.* Ph.D.dissertation,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Chonbuk National University, pp.30-46, 2010.

[34] M. J. Hyun, "The Effect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Emotional Expression and Empathy Ability on Interpersonal Competence: The Moderating Effect of Teacher Efficacy", *Journal of Korea Youth Counseling Association,* Vol.5, pp.115- 133, 2017.

[35] Y. L. Moon, "A Research on EI Development Programs for Character Education", *Journal of the College of Education.* Vol.58/59. pp.31-98, 1999.

[36] H. Y. Hong, *The Influence of Early Childhood Teachers' Motivation for Choosing Teachers and Teacher Efficacy on Job Satisfaction.*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ty of education, pp. 10-13, 2015.

[37] O. H. Lim,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Interaction Scale between Teachers and Infants for childcare Teachers",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Vol.9, No.1, pp.5-13, 2006.

[38] I. H. Kim, & J. K. kim, "The Effects of Early Childhood Teachers Emotional Intelligence, Job Satisfaction and Teacher Efficacy on Teacher Efficacy on Teacher-Preschooler Interacation",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20, No.7, pp.1075- 1100, 2020.
DOI: http://dx.doi.org/10.22251/jlcci.2020.20.17.1075

[39] H. J. Cho, & S. Y. Kim, "A relationship of teachers' emotional intelligence to teacher-infant interaction among infant teachers", *The Journal of Open Association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17, No.5, pp.189-208, 2012.

[40] Salovey, P., & Sluyter, D. J. (Eds.)., Emotional development and emotional intelligence: Educational implications. Basic Books. 1997.

[41] E. K. Kim, & S. E. Lee, "The Effect of Teachers' Efficacy on Teacher-child Interaction: The mediating effect of Job Stress", *The Korea Society for Children's Media*, p.74, 2018.12.

[42] E. J. Lee, & S. L. Kim, "The Effects of Early Childhood Teacher's Job Stress, Happiness, and Teaching Efficacy on Teacher-Child Interactions",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Vol.28, No.5, pp.437-447,2019.
DOI: http://dx.doi.org/10.5934/kjhe.2019.28.5.437

정 미 애(Mi-Ae Jeong) [정회원]

- 2009년 2월 : 숭실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과(교육학석사)
- 2021년 2월 :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과 (문학박사)
- 2019년 9월 ~ 현재 : 서정대학교 유아교육과 강사
- 2019년 9월 ~ 현재 : 성신여대 유아교육과 강사

〈관심분야〉
유아교사, 유아과학교육, 유아교육과정, 창의성교육

유 경 훈(Kyoung-Hoon Lew) [정회원]

- 1992년 2월 : 성신여대 유아교육학과(문학사)
- 1995년 2월 : 상명대학교 교육학과(문학석사)
- 2007년 2월 : 상명대학교 교육학과(교육학박사)
- 2010년 3월 ~ 현재 : 숭실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부교수

〈관심분야〉
아동발달, 창의성교육, 교육상담, 교육행정